

어저께 금방 콩씨더니 바로 오늘에 콩나무가 났더라!

21면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큰스님께 뭐 과자값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해 놓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제가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 일이 허가를 받게 되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여 허가를 못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로 하려고 했습니단만 어쩔 수 없이 또 큰스님을 친견을 하게 됐습니다. 친견하면서 조그만 저의 마음을 표시를 큰스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답 지금 말씀을 길게 하셨으니 긴 거를 한 번 짧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또 누가 묻질랑은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적게 하든 많게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굳이 말씀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만 되면 꼭 시주하겠다는 글

가 스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라고 묻질랑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세요, 꼭! 자기네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 앞에 갔다가 보시하거나 그러는 건 원순으로 할 때 바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무심으로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먹은 거고 자기가 쓴 거니까. 자기가 가져갈 거고 말입니다.

누구를 잘살라고, 누구 병 낫게 내가 약을 해 주느라고, 그렇게 누군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살기 위해서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 낫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위해서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일체 만물만생이다 같이 사니까, 같이 돌아가니까, 그쪽에서도 안하고 거기에 닿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도움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자기 주체에서 의사도 나고 약사도 나고, 판사도 나고 관세음도 나고, 문수도 나고 전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공해서 돌아가니까요.

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을 가만히 두면 부가 되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부처님이다 이 소립니다. 또 마음을 내고 움직여 봤다 하면 그것이 바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신(法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내가 움직여질 때는 부처가 아들로 가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졌던 게 바로 부모, 자부처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게 없는 거라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힘이 없이, 힘이 없이 그냥 가고 올이 없이 그대로, 그대로 자가 될 땐 자가 되고 부가 될 땐 부가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도리를 아실 것 있으면 우리가 수많은 유생(有生)이나 무생(無生)이나 전체, 즉 말하자면 저 물이나 산이나 들이나 어느 곳을 막론해 놓고, 보이지 않는 데 영계, 유행, 유체 또는 세균이나 또 사람들 사는 마음, 천차만별로 마음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하는 겁니다.

잠,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 척 뚫었다고 하니까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우주를 든 겁니다. 전체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손 든 것도 방편이니 손 들 것도 없이 내가 '어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바로 주인공과 함께 하는 거죠. '승보(僧寶)도 그러하나라.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닐진대 승보도 그러하나라. 승보는 그냥 따라가는니라.' 이러거든요. 이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생기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불과 법과 승보가, 불과 법이 즉, 아비와 자식이 둘이 아니게 돌아갈 때는 승보도 그러하나라. 몸은 그냥 따라가는니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참선이라는 것은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그 참 도리를 안다면 어떠한 거든지 못할 게 없고, 어떠한 거든지 주인공이 하는데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을 겁니다. 모두는 내 것도 아니면서 전체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 것이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체 한생각에는 나도 건질 수 있거니와 남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능력이 바로 생소듯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로수가 돼서, 그 감로수처럼 양식을 삼는다는 얘 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뛰고 싶으면 뛰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럴 때 그냥 그 용도에 따라서 내 안에 딱 내서 앉았다면 그건 참선이 아니에요. 진짜 참선이라는 것은, 똥 누면서도 진짜 진실해 들어간다면 이거는 참선이 돼서 그게 공력이 되는 거고요. 공심(空心)으로 돌아가는 게 공력이예요. 공심으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한마음으로 움직여지고, 한마음으로 먹고 한마음으로 살고, 한마음으로 용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대로 공력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산다면 자기를 보기까지, 참 자기가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생활 자체가, 당신이 보고 듣고 하고 만나고, 식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사랑하고 돈 벌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당신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가 다 말기고 믿고 일임하고, 꺼내 쓸 때는 거기서 또 꺼내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나요?

문 제가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는 분께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 "부처님 마음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어디서 왔나요?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답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은 물론 이렇다 저렇다 들고 도는 물과 같은 것이지만 말 한마디 규정해서 아귀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어떤 이는 대로 안다는 것을 세우지 않고 말할 수 있고 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 여기 마이크가 있다고 합시다. 마이크 안에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지금 마이크의 근본은, 우리가 씹씹이 없다면 이 마이크는 소용이 없죠.

이전도 아니요 이후도 아닙니다. 단지 화장한 날씨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흘러 돌 뿐입니다. 사람사람이 누구누가 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모든 게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세를 게 없으니 어디로부터 세를 게 없는 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은 '계단이 없으면서도 한 계단이 있고 한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려워라. 두 번 죽기 어렵다 했더니 세 번 죽기 어렵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죽어서 알고 두 번 죽어서 몰랐더니, 세 번 죽고 보니까 알고 모르고 혼비백산이 돼 버렸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창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론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고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역경을 거쳐서 진화가 돼서 나왔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에 의해서 모든 게 규합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어저께 금방 콩씨었

더니 바로 오늘에 보니까 콩나무가 났더라는 얘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뜻이.

그러니까 역경을 거쳐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몸 하나 나난 것이 전체 그 습으로 인해서 두리둥실 물수리 처럼 다 질어지고 안고 이고, 이라고 바로 오늘의 내가 지금 살고있죠. 전자의 살던 습을 지금 하고있지 않습니까? 여자라 하면 여자의 행동을 하는 습을 가졌고, 남자라 하면 남자의 습을 가졌고, 또는 애들하고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어른이라는 습을 가졌고 또 어른 보면 나는 젊은이라는 습을 가졌고, 살림살이의 모든 전체, 맛이 있다맛이 없다. 이 모든 전체 이까지 살아온 습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라는 두 마디는, 글자는 똑같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차원이 똑같은 바가 없습니다. 비유한다면 남매도 있고 경동도 있고, 무죄도 있고 동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렇듯이 이 세상 돌아 가는 이치, 서로 만나서 사는 것도, 서로 모이는 모임도 까리까리 모인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자기의 습에 의해서 차원대로 자기 모임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과라고도 합니다. 자기 습에 의해서 인과를 짓고, 인과를 지음으로써 그 습을 떼지 못하면 바로 그게 유전으로 변화하고, 유전으로 변화한다면 자기가 생각하고 아끼고 그러면 착을 둔 데에 꼭 유전성이 거기에 붙어 돌아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얽히고설키고 그렇게 붙어 돌아가고, 끊임없이 꼬달리면서 이렇게 여직껏 내려온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습을 떼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떼려고 하는 마음도 공이요, 또 내 몸도 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을 데가 없는 데, 때리고 하는 게 어디 불을 데가 있는냐는 얘깁니다. 불을 데가 없는 데 때려 가는 어디 있는냐는 얘깁니다. 본래는 있다 없다가 흰 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 유생 무생의, 만 사람의 마음의 꽃이 향기롭게 이 우주를 덮는다면, 우리는 이 마음이 어쩔고 그 마음이 어쩔고 이렇게 갈라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꽃의 향기와 갈아서 마음이 그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어질고 도의 의리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지혜 높은 그런 넓은 사람이 있고, 또는 이 도리를 알아서, 공한 도리를 알아서 자기의 아상도 세우지 않고 욕심도 착도 두지 않고 등골등골 걸리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바로 법신이 자부처인 것이죠.

경을 읽어서 공부한다면

문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지만

문 있는 것 뒤에 문 없는 문이 있습니다

책을 자기네들 마음으로 정해 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건 대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문 드문 이게, 처음 오셔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다가 금액을 정해 놓게 되면 '그렇게 해!'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됐는데도, 그거를 안 한다 이겁니다. 이러면 그거는 됐다 하더라도 만 게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남의 물건은 가져가고 물건값을 안 갚으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단 얘깁니다.

그렇게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이렇게 해 주시되 그 금액을 지어 놓고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하겠습다'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단 있다면, 자기 마음으로 '그저 이런 게 이렇게 잘되면 어렵하든지 그저 불사도 하고 그러는 데 좀 해!'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얼마라도 자기가 새 돈으로 정성껏 이렇게 해서 담아서 하면 대치가 될 것을, 그냥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생을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도 그렇게 굶어서 부수림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곤 읍니다. 이게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이 길잡이 노릇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사람 셋 끌고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니 정말입니다. 언제나 누

참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요?

문 안녕하십니까? 불교 경전 공부와 참선에 관심이 많은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참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 참선이라는 거, 예전의 스님네들은 '참선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주 제 일등으로 봤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참선이나, 참선은, 행선도 참선이고 좌선도 참선이고 입선도 참선이고, 모든 행 전부가, 일거수 일투족 전부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어! 결계가 되면 한 걸 선방에 가서 나아지. 않아서 좌선을 해야 그것이 으뜸이지.' 요렇게 변명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육신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면 코도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것을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이 육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마음이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을 시켜서 놓는다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편안한 반면에 반드시 내가 생각을 하면 바로 자(子)가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하면 부(父)가 되는 겁니다. '부와 자가 둘이 아니니라' 하는 뜻은 '부가 자로 가면 자가 돼 버리고, 자가 부로 오면 부가 돼 버린다' 하는 얘깁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걸 어떻게 생략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이전 제대로 알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원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